

문화

미리보는 광주 디자인비엔날레 D-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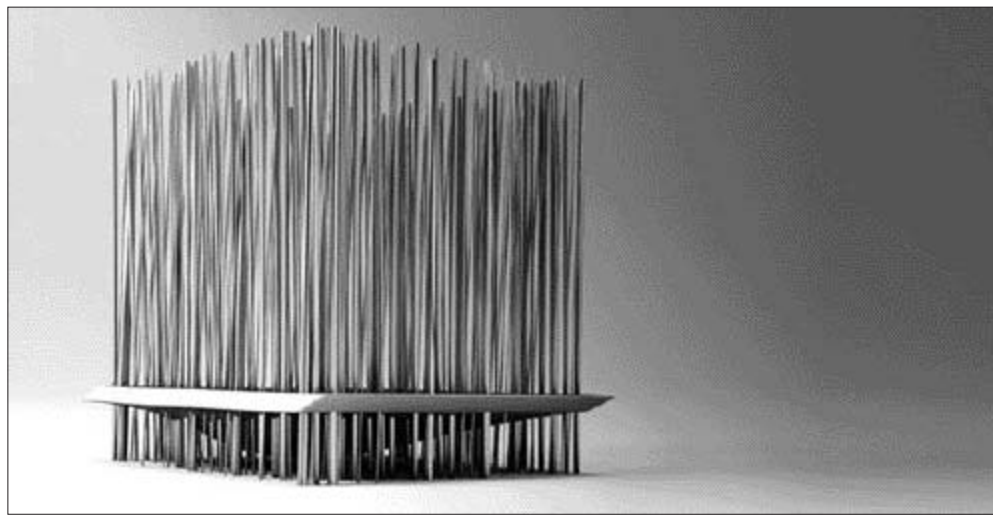
장르와 경계를 파괴한 작품들

“시인이 만든 디자인 씬터에서 쉬고, 조각가들이 선보이는 생활 디자인을 만끽하세요.”

제3회광주비엔날레(9월18일~11월4일)는 시인과 연극인이 디자이너로 데뷔하는 등 장르와 경계를 파괴한 새로운 시도를 선보인다.

시, 음악, 회화, 설치, 조각 장르에 담긴 디자인적인 요소를 찾아내고, 이들 장르와 결합한 새로운 시각 예술을 감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또 순수미술 작가들이 고풍스런 한옥에 디지털 우물을 설치하고, 소화전을 조각품으로 꾸미는 등 불거리도 풍성하다.



소쇄원을 재해석한 피터 슈라이어의 작품 '휴식'

한옥·음식·소리... '디자인 옷' 입다

2009 광주디자인비엔날레 Gwangju Design Biennale THE CLUE



시인·소설가·작곡가·후 디자이너 소쇄원 재해석

'디지털 우물' 화면엔 묵으로 그린 물고기 헤엄쳐

▲장르 파괴가 주는 신선함=이번 전시에는 소설가 이외수, 영화감독 김기덕, 현대무용가 안은미, 시인 황지우(전 한국예술종합대학 총장) 등의 예술가들이 '집' 색션에 참여, '소쇄원'을 재해석하게 된다.

특히 이 색션에는 작곡가 박범흥(중앙대 총장), 황인용 아나운서, 세계 3대 자동차 디자이너로 꼽히는 독일 출신의 자동차 디자이너 피터 슈라이어(기아자동차 디자인총괄 부사장) 등도 참여해 창의적인 발상이 가미된 작품을 선보인다.

이들은 소쇄원을 모티브로 가로·세로·높이 2m 크기의 휴식공간을 만들었다.

특히 기아자동차 부임 후 색다른 자동차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는 그의 손끝에서 탄생하게 될 '소쇄원의 재해석'은 기대되는 작품 중 하나이다.

▲미술가들이 선보이는 디자인=박태우, 이이남, 고근호씨 등 지역 대표작가들이 참여한 순수미술과 디자인의 경계를 오가며 현대 시각예술의 다양한 흐름을 보여준다.

참새 그림으로 유명한 박태우씨와 미디어 작가 이이남씨는 프로젝트 전시인 '어울림' 색션이 펼쳐지는 남구 양립동 이장우가족(시 지정 민속자료 1호)에 '디지털 우물'을 설치한다. 근대 건축문화의 대표작으로 1899년에 지어진 이장우가족 마당에 작은 우물을 설치한 뒤, 우물 속에 디지털 화면을 넣은 작품이다. 박씨가 묵으로 작은 물고기를 그렸고, 이씨가 지느러미를 흔들며

헤엄치는 물고기의 움직임을 표현했다.

또 이곳에서는 마릴린 먼로 등을 유쾌하게 표현한 '영웅시리즈'의 고근호씨가 소화기와 소화전을 조각품으로 탈바꿈시킨다. 고풍스런 한옥에 어울리지 않았던 소화기에 까치와 호랑이 형상의 조각품을 얹어 놓은 작품이다. 조각가 최은태씨도 이장우가족의 수도, 비사발을 부엉이 형태로 꾸민다.

▲소리와 음식도 디자인 작품=인류는 더욱 맛있는 음식을 위해 그릇과 탁자를 고안했고, 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스피커를 만들어 내는 등 수많은 디자인을 창조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음악과 요리 장르도 경계를 넘어 디자인의 옷을 입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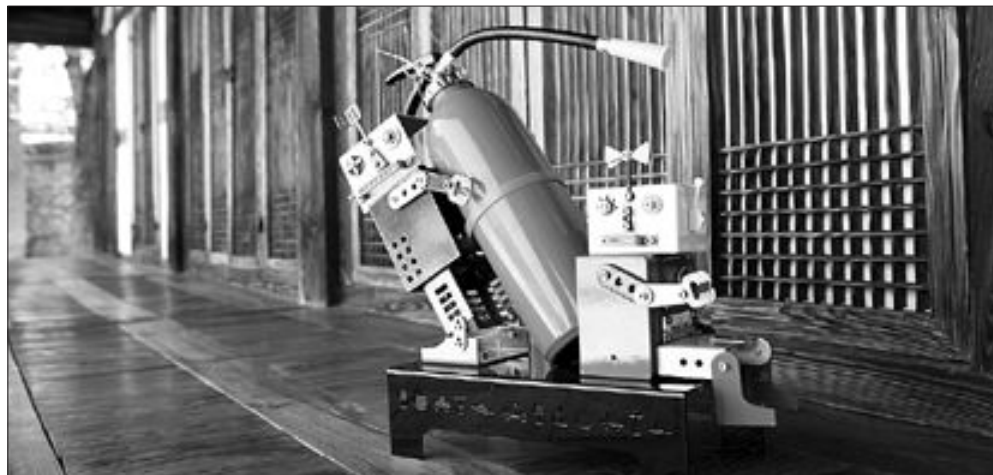
음악을 다루는 주제전인 '락'(樂)색션에서는

김창조(1865~1919년), 김난초(1911~1989년), 황병기 선생(73)의 가야금을 비롯해 99명의 국악 명인들의 악기를 전시한다. 이들 악기를 전시장 천장에 매달아 관람객들이 지나가면 국악을 들려주고, 다양한 악기에서 각기 다른 디자인적인 요소를 엿본다.

또 가야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토나무를 골라 무려 7년이란 시간을 자연 건조하는데, 이 과정도 전시관에서 생생하게 보여준다.

요리를 선보이는 주제전 '식'(食)색션에서는 대나무 숲 연작과 움직이는 설치작품을 선보이고 있는 손봉체씨는 이번 디자인비엔날레에서는 비빔밥을 주제로 한 설치작품을 전시해 눈길을 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고근호 작 '영웅 시리즈 소화기'

시립예술단체 "바빠졌다"

신중플루 취소 공연 다시 진행... 정을성국제음악제도 재추진

신중플루 사대로 취소·연기됐던 시립예술단체 공연이 다시 열리는 등 공연 무대가 활기를 찾고 있다.

시립예술단체 공연을 전면 취소했던 광주문화회관은 15일 시간이 촉박한 9월 공연 일정은 조정하고, 10월 부터는 각 단체의 공연을 정상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9월 무대 중에는 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의 공연이 재추진된다. 당초 13일 공연예정이었던 소년소녀합창단의 '창작뮤지컬-우리들의 축제'는 26일 열리며 합창단은 29일 정상적으로 관객을 찾아가는 등 25~26일 공연 날짜를 잡았던 무용단의 '실비아'는 의상 제작 일자 등이 촉박해 내년 2월로 미뤄지며, 16일과 18일로 예정된 국악관현악단과 교향악단 공연은 취소됐다.

문화회관은 또 회관 기획프로그램인 '남도소리 상설무대'와 '화요예술무대'도 10월부터 재개한다. 이번달 16일 열릴 예정이던 터울림전 통해 공연구회의 공연은 취소되며, 10월 14일 날짜가 잡힌 '최옥삼류 가야금산조연주회'부터 정상공연된다. 반면 '화요예술무대'인 '소통의 시간'(10월6일)은 행사 진행단체가 재추진에 난색을 표명해 취소했다.

한편 이번 공연 취소·숙개 과정에서 문화회관이 보인 대응에 대해 비관하는 목소리도 있다.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공연



광주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성격과 관계 없이 시립예술단의 모든 행사를 취소한 것은 과민 반응이었다는 지적이다. 시립예술단체 공연을 모두 취소한 것은 광주가 유일했다.

특히 문화회관이 '기획'했다는 이유만으로 400석 규모의 소극장에서 공연되는 '남도소리 상설무대'와 '화요예술무대' 초창 공연까지 모두 취소한 것은 다소 무리수였다.

시립단체는 정기공연 형태로 수차례 공연을 진행하지만, 공모를 통해 무대에 설 예정이었던 일반 단체들의 경우 오랫동안 준비한 작품을 단 한차례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잃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로 인해 광주시청 야외음악회 등 2건의 연주회를 취소한 교향악단은 계약을 마친 남경주와 초청을 추진중이었던 독일지휘자 울라프 스톨벤 등에 대한 위약금 지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또 11월에 유영 오페라 가수를

초청해 이를 동안 열 예정이었던 오페라 관련 연주회도 취소하고, 다른 대외토리도 정기공연을 준비할 예정이다.

광주정을성국제음악제도 재추진이 결정되면서 다시 분주해졌다. 중국 행사가 취소된 점을 감안, 10월 15일~17일까지 3일 일정으로 행사를 준비중이었던 조직위는 밑그림을 그려뒀던 프로그램을 다시 정비하는 하는 등 바빠 움직이고 있다.

다행히 당초 계획한 프로그램과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와 국내 연주자·연주단체 출연진은 그대로 계약을 진행중이며 중국 측 참가자만 바뀔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국은 다음주 중 조직위와 집행위 회의를 진행한 후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인 행사 프로그램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노래교실·작품 전시회·가족영화 감상...

17일 광주여성발전센터 개관 20주년 행사 다채

원본부, 수영장 등을 운영하고 있다.

광주여성발전센터(소장 최연주)가 17일 개관 2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했다.

이날 오후 2시 센터 대강당에서 열리는 개관 기념식에서는 개관 20주년 경과보고와 유공자 표창 등을 하며 식전행사로 다양한 노래와 춤을 배울 수 있는 노래교실을 운영한다.

또 의상과 요리 분야 교육생과 강사들의 작품전시회가 열리며 오후 3시30분부터는 3층 강당에서 '위낭소리', '트렌드포머', 누

들 등 영화 세편을 연속 감상할 수 있는 무료 가족영화 상영회가 열린다.

지난 1989년 광주시 남구 양립동에 문을 연 광주여성회관에서 출발한 광주여성 여성발전센터는 지난 2000년 광주시 서구 치평동에 지하1층, 지상 3층 건물을 마련,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다양한 문화교육을 진행하는 10개의 강의실과 상담실, 유아실, 광주여성새로일하기 지

특히 여성들의 인권 향상을 위한 여성 긴급전화 '1366'과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도 운영하고 각종 자원봉사 활동을 진행하는 등 사회참여 활동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최연주 소장은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광주여성발전센터를 여성의 직업교육과 취업 연계의 원소를 기반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062-383-414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A large advertisement for '영화안내 HAPPY TIME' (Movie Guide Happy Time) featuring various cinema listings for Megabox, Columbus Cinema, Hami Cinema, Sinner's Front, and Zeil Cinema. It includes movie titles, showtim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each location.